

# 목과 색의 사유... 광주 현대수묵 거목 김대원 개인전

내달 11일까지 수하갤러리 소장전 80~90년대 초기작품 20여점 선배 실경산수에 천착한 수묵담채 화풍 이후 비구상적 현대수묵화로 변모

수묵과 채색의 경계를 넘나들며 비구상적 현대수묵화의 지평을 연 광주의 원로 화백 지암 김대원. 그의 클래식한 초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개인전이 열린다. 동양화가로서 성실하게 그려낸 수묵담채의 전통 산수화다. 세월만큼 더해진 깊은 묵향이 고요한 사색을 이끈다.

동구 동명동에 있는 수하갤러리는 김대원 화백의 초기작을 내건 소장전 시리즈1를 오는 8월 11일까지 연다. 신작이 아닌 옛 작품을 내건 소규모 갤러리 전시이긴 하나, 김 화백 이름을 내걸고 열리는 3년만의 전시다.

특히 '전통의 현대화'를 추구하며 김 화백의 화풍이 다이내믹하게 변모한 데다,

클래식한 수묵 필치로 당대 미술계 주목을 한눈에 받으며 젊은 시절 인기화가의 '전성시대'를 구가한 덕에 현재 작가 수준에 남은 그의 초기작이 몇 없다. 그 몇 안 되는 초기작 20여점을 주렸다.

시기적으로 1983년부터 1994년까지 제작된 작품이다. 김 화백은 이때 신에 화가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전통 수묵담채 화풍으로 실경산수를 그려냈다. 대작들은 나주 불회사, 동해바다, 무등산, 장백폭포 등의 절경이 펼쳐져 있다. 인도, 중국, 백두산 여행에서 본 풍경을 그린 작은 작품들도 걸렸다. 일상에서 아내를 그린 작품도 눈에 띈다.

김 화백의 초기 수묵작품은 빼어난 세필로 대상을 정밀하고 정확하게 묘사하는 실경산수를 취한다. 동양화가의 투철한 신념이 엿보이기도 하고, 그림에도 불구하고 가감히 사용한 먹 이외의 강렬한 색감에서 앞으로 작업 방향이 색을 강조한 현대수묵화로 변화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듯하다.



광주의 원로 화백 지암 김대원 작가가 오는 8월 11일까지 수하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김 화백은 "조선대 미대 교수로 재직하다 보니, 퇴임 전에는 개인전을 자주 열 수 없었다. 그래도 3~4년에 한 번씩 전시를 열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다"며 "작업이 크게 3개 시기로 나뉜다. 화풍이 변모

하면서 근래 전시에서는 주로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고 채색을 강조한 비구상적 수묵 추상화를 주로 선보였는데, 아주 오랜만에 초기 작품을 내걸어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일찌감치 클래식한 동양화풍을 완성하면서 붓이 종이에 닿기만 해도 그림이 되는 '낙필성화' 경지에 오른 그에게 화풍 변화는 쉽지 않은 고민이었다. 김 화백은 "미대 교수로 교단에 선 입장에서 제자들에게 예술가의 철학과 가치관을 강조하기 위해 모범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컸다. 대중적으로 똑같은 화풍의 작업만 할 수 없었다"며 "이미 완성된 화풍을 버리고 새로움을 추구하며 인물화, 채색화 등의 분야도 끊임없이 탐구했던 것이 나만의 '소리 없는 교육'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전시가 열리는 수하갤러리는 김 화백이 지난 2013년 개인 작업실과 함께 마련한 공간으로 지난 3월 아내 장하경(전 광주대 교수) 씨가 대표작을 맡으면서 재개관한 동명동의 새 갤러리다. 김대원 개인전이 마무리되면 제15회 광주비엔날레에서 뉴질랜드 파빌리온 전시가 이어진다. 내년부터 김대원 화백의 화풍 2기를 조망한 소장전 시리즈2가 이어진다. 글·사진=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 소속 청소년 기후행동 모임 1.5가 최근 졸업식을 끝으로 지난 5년간의 활동을 마무리 했다. 삶디자인센터 제공

## 삶디자인센터 청소년기후행동 모임 '1.5°C' 5년간의 행보

졸업 끝으로 기후활동 마무리 금요행동 등 문화캠페인 주도 유닛그룹 '1.5도 화음' 자작곡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삶디) 소속의 청소년 기후행동 모임 '1.5°C(이하 일점오도씨)'가 지난달 14일 졸업식을 끝으로 기후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기후 행동과 실천을 독려했던 지난 5년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2019년도에 결성된 일점오도씨는 2024년도까지 총 86명의 청소년이 312회 만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활동했다.

일점오도씨는 영화, 음악, 전시 등 문화적 매개를 통해 기후위기 경각심을 일깨웠다. 2019년 10월 5명의 청소년이 책임자로 모임을 시작, 이듬해부터 15명 이상이 모여 '미래를 위한 금요행동' 동참, 서울 광화문 '기후정의 행진', 강원도 삼척 '기후정의 파업' 등에 참여하며 활동의 폭을 넓혔다.

이 외에도 △단편희곡읽기 워크숍 △마당극 '기후제' 공연 △'길간 1.5' 잡지 발행 △영화 '그레타 툰베리' 상영회 △이하루 작가 초청 북토크 등을 진행했다.

올해 2월에는 삶디 미니극장에서 한국계 브라질 다큐멘터리 감독인 아이라 리

(Iara Lee)의 영화 '비사우를 위한 연대' 상영회를 열어 지역을 넘나들며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섰다.

일점오도씨 멤버는 매년 15명 내외로 활동했다. 기후활동 중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가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비슷한 관심사와 문제의식을 느낀 멤버들은 때로 기후우울증과 무력감 등을 겪었는데, 그럴 때 서로 의지하며 기댈 수 있는 존재로서 대화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 방법을 찾으며 지난 5년을 함께했다.

2020년 결성된 일점오도씨 유닛그룹 '1.5도 화음'의 활동도 주목할 만하다. 1.5도 화음은 기후위기와 관련된 메시지를 담아 자작곡 3곡을 만들어 이듬해 3월 정식 음원으로 발매했다.

1.5도 화음 보컬양세진(24)은 "음악이 주는 힘이 있다. 생명의 소중함과 평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과 의지를 담은 노랫말이 많은 이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일점오도씨 멤버들의 소회가 담긴 회고는 삶디(동구 중앙로160번길 31-37) 2층에서 볼 수 있고, 그간의 주요 활동 내용은 삶디 블로그(blog.naver.com/hellosamdi), 일점오도씨 인스타그램(@1.5\_gihoowigi\_dong\_a.ri)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 백설공주 미워한 왕비가 주인공 '삼양동화' 공연



ACC재단 각색 어린이뮤지컬 예술단체 '해의 아이들' 기획 내달 10~11일 어린이극장서

"고전 동화를 현대적 시각으로 바꾼 명랑동화 뮤지컬을 만나보세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2024년 ACC 어린이극장 공동 기획(레츠 플레이) 두 번째 작품으로 오는 8월 10~11일 이틀 동안 ACC 어린이문화원 어린이극장에서 뮤지컬 '삼양동화'를 선보인다.

'삼양동화'는 고전 동화인 '헨젤과 그레텔'을 '헨젤과 새엄마'로, '백설공주'를 '거울을 깬 왕비'로 각각 각색한 작품이다. 기존 동화 속에 숨겨진 차별적이거나 편향적인 내용들을 현대적

인 관점에서 새롭게 바꾸었다. 공연은 모험을 통해 한걸음씩 가까워지는 헨젤과 새엄마가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는 이야기와 남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왕비의 이야기로 풀어낸다.

또 관객들이 삼양동화 주제를 부르고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는 등 참여형 뮤지컬로 구성했다.

공연에서는 어린이 관객들과 원작 동화와의 차이점 등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생각하는 힘도 키워줄 예정이다.

2021년 창단한 예술단체 '해의 아이들'이 기획한 '삼양동화'는 2022년 아시테지 겨울축제 대표 공연 선정, 제30회 서울어린이연극상 관객인기상 수상 등을 통해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

정받았다. 이번 공연은 오는 8월 10일과 11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등 총 4회 공연되며, 관람료는 1만5000원이다. 36개월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 가능하며, ACC재단 누리집(www.accf.or.kr)에서 예매 가능하다.

한편 ACC 레츠 플레이는 국내 및 지역 예술단체와의 상생을 통해 극장과 어린이공연 활성화를 위한 공연 프로그램 공모사업이다. 올해는 주로 아이들극장과 협력으로 총 5편의 공연을 선정했다. 5월 시네마음악극 '빨간풍선' 공연에 이어 8월 '삼양동화'와 '달님이 주신 아이', 9월 그림자 인형극 '이야기 속! 이야기야!', 12월 국악 인형극 '연희도깨비'를 차례로 선보인다. 도선인 기자

## 국립광주박물관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 개최

내달 9일까지 참가신청

국립광주박물관은 오는 8월 12일 제35회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를 통해 지역 어린이들이 우리 문화유산을 직접 보고 그리며 창의력과 예술적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대회 참가신청은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에서 8월 9일 오후 5시까지 접수해야 한다. 참가비는 무료고 광주·전남 지역 초·중·고등학생(동일 연령 청소년) 30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으뜸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 3명, 버금상(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상 등) 6명, 솜씨·꿈나무상(국립광주박물관장

상) 90여명에게 수상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는 10월 1일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에 게시된다. 또 입상작은 10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에 전시할 예정이다.

이애령 국립광주박물관장은 "이번 대회가 어린이들에게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미술을 통해 창의적 사고를 키우고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가능하다. 도선인 기자